

# 01

##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 과정

정대근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 박사)

키워드: 광주형 발전, 광주형 변천,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뉴딜

# 1. “광주형” 그 의미를 찾아서...

## - “광주형”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 과정

“광주형”에 대한 분야별 개념 정립에 앞서 “광주형”이라는 용어 사용의 출발점 및 발전(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형”의 시작이 12대 윤장현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였다면 그 확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사상생형 일자리”이며, “광주형”의 현재는 이용섭 시장이 말하는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 숨어 있는 “광주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이란 무엇인가?

최근 많은 지역에서 정책사업에 각 지역의 이름을 붙여 “○○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형”이란 이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인 광주에서조차 “광주형”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볼 때 지금이 바로 “광주형”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하는 “광주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가 그 시작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존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를 위한 약속**

- 넉넉한 광주**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100대 명품강소기업 및 미래형 혁신기대산업 육성
  - '신명신강 시대' 광주·전남 상생발전 추진
- 따뜻한 광주**
  -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
  - 순환복지체계와 워킹맘·장애인 행복도시 구현
- 꿈꾸는 광주**
  -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융합문화산업 육성
  - 맛고를 문화단지 조성 등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 미래인재육성과 청년공간정책 특성화 교육도시 구현

※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시장선거  
기호 2번 윤장현 책자형 선거공보지 p.9

### ■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12대 광주광역시장이었던 윤장현시장이 2014년 6월 후보시절 정책공약으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실 윤시장의 4대 핵심공약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형 구축”과 함께 “광주형 융합 문화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공약도 함께 있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용어가 “광주형”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선 이후 2014년 9월 전담조직인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문재인 의원실(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 공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sup>1)</sup>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광주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출처: 문재인 공식블로그

광주광역시는 2015년 2월 ~ 7월까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8월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안)을 정의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폐지 2018년 11월)하였으며, 이 조례에는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역할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대전략 26개 과제

**0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부

- 사회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을 마련.
- 성별 ○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실적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중점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 금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을 1.107 평가하였으며, 이는 국책사업으로써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광주광역시 총사업비 3천 30억을 확보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노·사·

1) 문재인 공식블로그 2021.01.11. <<https://blog.naver.com/moonjaein2/220291866341>>

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초협약」을 의결하였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형”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이 포함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약속했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빠졌으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광주, 담양)”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5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이 조례에서는 광주형일자리와 함께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시장 재임기간(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중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으며, 지지부진 하던 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2)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정과제 2021.01.10.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6월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의향서 제출”과 함께 급진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현대자동차 노도 및 민주노총 등의 반대, 지역노동계 노사민정 불참선언 등이 이어졌고, 이후 2018년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었다.

2019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2019년 8월 20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이 열렸다.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17일 제1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접수(23명 모집, 358명 지원, 16대1의 경쟁률)가 이뤄졌다.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1년 1월 7일 현재 임원 6명, 경력직 137명을 채용으며, 신입사원 186명 모집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17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9월부터 완성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상생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한 정책으로 국정과제 16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5,754억원(자기자본 2,300억원 / 타인자본 3,454억원)의 자본을 확보하였으며, 정규직 1,000여 명의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2019년 6월 “경남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2019년 7월 “경북 구미형 일자리”, 2019년 8월 “강원 횡성형 일자리”,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등으로 발전하여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부산형 일자리”가 추가로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20년 4월에는 1월에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강원 횡성형 일자리”,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로 추가 선정하였다.

### ■ “광주형”의 확장 및 미래



####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3만개 창출
-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도입
- 광주형 노인복지최소보장제도 도입



“광주형”에 대한 용어는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형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장현 시장 당시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광주형 융합 문화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정책명도 사용하였으며, 민선 7기 이용섭시장은 2018년 6월 선거공약서에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반면 「걱정없는 광주」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광주형 치매안심 시설 인증제 도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도입”등을 통해 “광주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광주광역시 2020년 6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AI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Net-zero)의 ‘그린뉴딜’, 상생·안전의 ‘휴먼뉴딜’을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속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 “광주형 공공배달앱”, “광주형 복지혁신 모델”, “광주형 평생주택” 등 다양한 “광주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를 달리는 지금, 광주시는 변화에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광주형”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추구하는 “광주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일까? 광주시의 ‘광주형’이 시민이 생각하는 ‘광주형’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쯤일까?

